

어울림마당·제등행렬 분리 개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올해 연등축제 행사 계획안 발표

불교계 최대의 축제인 연등축제가 '동대문운동장시대'를 마감하고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새 마당을 펼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연등축제 중 어울림마당을 분리·개최하고, 제등행렬 출발 장소를 동국대 대운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연등축제 행사 계획안을 1월 29일 발표했다.

우선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던 어울림마당과 제등행렬은 각각 분리·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등행렬의 사전 행사 형식으로 치러졌던 어울림마당을 연등축제 준비행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4월 27일 잠실올림픽공원 제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어울림마당은 1만50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규모로, 참가자들의 화합과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봉축위는 "그동안 불교문화마당과 제등행렬 준비로 어울림마당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자들이 모두 아우르는 흥겨운 행사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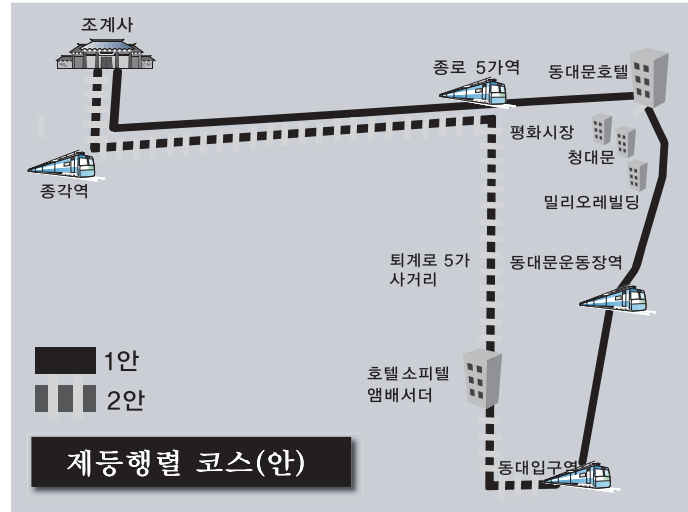
제등행렬은 5월 4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집결해 출발한다. 현재 봉

축위는 동국대에 1만5000~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의 시설보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전체 제등행렬 참가자가 집결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일부 참가자들과 봉축 장엄등은 동대문운동장 앞이나 퇴계로 등에서 제등행렬에 합류하게 된다.

제등행렬 코스는 현재 두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동국대운동장을 출발해 장충단공원→동대문운동장→종로5가→종로→조계사로 도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동국대운동장→엠베서터호텔 앞→퇴계로사거리→종로5가→종로→조계사를 경유하는 코스다. 봉축위는 교통문제 등을 고려해 경찰차와 협의한 후 제등행렬 코스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봉축위 박상희 총괄팀장은 "1970년대 연등축제가 태동할 당시 재학생 모두가 제등행렬에 참가하는 등 동국대가 연등축제를 주도적으로 치른 역사가 있다"며 "동국대 앞 퇴계로가 제등행렬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점도 장소 선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연등축제는 3만여 명이 넘는 불자



와 시민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일 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만도 1만여 명이 가까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다. 하지만 올해 연등축제가 한 주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 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일정이 겹치게 된 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어울림마당 장소의 대안으로 꼽혔던 서울시청 앞 광장도 하이서울페스티벌 때문에 사용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청

앞 봉축장엄등 점등식도 페스티벌과 일정이 겹친다. 박 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대문운동장의 공원과 사업 후 연등축제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장소문제는 차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동국대운동장과 잠실제조경기장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치루는 만큼 호응도와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장소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대청불교신문 7주년 법회

대청불교신문(회장 법정, 황천사 주지) 창간 7주년 기념 및 신년하례 법회가 1월 25일 오후 6시 유성관광호텔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마곡사 주지 범용 스님, 태고종 대전교구 주무원장 월해 스님, 안심정사 주지 법안 스님, 박성호 대전시장,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연합순 대청불교 사장은 "창간 7주년을 맞이해 대전충청 불자의 신문이라는 선언을 한다"며 "창간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혜정 스님은 "바르고 거짓 없는 맑은 신문이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정법이 전달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전경찰청 불교회 창립

혜충 스님 등 200여명 참석 창립법회 개최

대전지방경찰청 경찰불교회(회장 태경환)가 2월 1일 창립했다.

2월 1일 대전지방경찰청 3층 회의실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을 비롯해 마곡사 주지 범용 스님, 수덕사 주지 용산 스님, 대전지방경찰청 경순 내장자민 철웅 스님(교안사 주지), 대전지방경찰청 불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충남지방경찰청

과 분청(分廳)된 대전지방경찰청은 현재 신규청사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종교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회는 신청사 신축 후 법당을 개원할 예정이다. 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경찰불회는 앞으로 조직을 정비한 후 인근 지역 사찰을 순례하며 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충북 중평회 신임 임원선출

충북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김정웅)는 2월 15일 오전 11시 청주중앙 대회의실에서 신임 임원선출 및 사업계획 논의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사무국장, 대변인을 선출하게 된다.

충북종교인평화회의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종교평화국제사업단 지부 등록 ▲충북종교문화제 및 문화협력 세미나 개최 ▲종교인 자원봉사학교 운영 ▲종교청년 평화캠프 참가단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종교평화 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단법인 종교평화국제사업단에 지부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종교간 교류와 이해를 위한 문화제도 11월 중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전남 4대 교구본사 회의는 1월 28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태안 주민에 도움의 손길을”

전남4대 교구본사, 전남도지사에 성금 전달

전남4대교구본사협의회(회장 성우, 백양사 주지)가 1월 29일 전남도청 김대중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민을 돕기 위한 성금 1500만원을 전라남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열린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건설을 위한 기원 신년하례법회'는 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다.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여수 흥곡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전남 지역 불자 모두의 일심발원으로 율

한해는 세상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화평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문수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무자녀 새해를 맞이하자"고 설했다. 성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08년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이므로 그 어느 지역보다 불교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있는 전남지역 사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도 "불교의 호국정신과 생명존엄의 가르침을 전남의 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충용사 훈련장병 수계법회

37사단 충용사주지 상철은 1월 27일 한국불교여래종 중흥인왕스님을 전계사로, 해륜 스님(규정원장)을 갈마아사리로, 호공 스님(감찰부장)을 교수아사리로 훈련장병 100명에게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자들은 "첫째 불심을 발하고, 둘째 스님들께 귀의하고, 셋째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순응하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인왕 스님은 "계를 받은 장병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각오로 남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고창 선운사 교구총회 개최 조사전 건립 등 7대사업 확정

조계종 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은 1월 26일 말사주지와 교구총회의원, 실각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총회와 말사주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무행정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문화·복지·생태환경·포교·지역사회연대 등 7개 분야의 세부 계획을 심의했다. 회의결과 ▲조사전 건립 및 학술대회와 연구 활성화 ▲포살과 결계를 통한 수행종풍 진작 및 기본교육 강화 ▲선운사 문화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민과의 유대 강화 ▲고창사회복지관을 통한 사회복지 강화 ▲노인 및 승려복지타운 건립 ▲고창읍내

어린이유치원과 포교원 건립 등을 포함한 중·단기 계획이 확정됐다. 이 중에서도 조사전 건립과 승려복지타운 건립이 중점 사업으로 논의됐다. 선운사 내에 조사전을 건립하는 한편, 조사스님들을 모용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해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잇겠다는 것이다. 또한 각 말사에 산재해 있는 조사스님들의 유품을 한 곳에 모아 '유물전시관'도 개관하고, 부도전을 정비하는 불사도 추진된다. 또한 11월중에는 실비로 운영되는 전문요양시설을 수탁하고 고창군과 함께 석상마을에 노인 및 승



고창 선운사는 1월 26일 교구총회와 말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승려복지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무행정상은 재덕 스님(간전사), 포교부본상은 월공 스님(광주 덕림사), 불사부본상은 성수 스님(유선사)이 각각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00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밤잠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원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유.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환관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환관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차

불교예술대학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불자들의 좋은 교육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범패 및 작법문, 사물다루는 법 등 전반기교육
- 원서교부: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정규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